

문자만 하는 배우 이서진의 핸드폰 영화



배우 이서진

‘완벽한 타인’ 31일 개봉

“전라도 광주에서 한 달간 합숙을 했다. 방만 다르지 하루를 같이 보냈다. 배우들 간의 호흡이 중요했던 영화다.”

배우 이서진(47)은 31일 개봉하는 영화 ‘완벽한 타인’을 이렇게 소개했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폰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이서진과 함께 유해진(48)·조진웅(42)·윤경호(38)가 40년지기 고향친구, 염정아(46)·김지수(46)·송하윤(32)이 친구들의 배우자로 등장한다. 서로에게 비밀이 없다고 믿는 친구 7명이 휴대폰으로 오는 문자·전화·카톡 등을 강제로 공개해야 하는 게임 때문에 벌어진 이야기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사람들이 감춰 온 비밀이 하나둘씩 드러난다.

이서진은 “휴대폰 잠금해제 게임을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한다”며 “영화에서 내 폰의 내용을 보기 위해 이 게임이 시작된다. 게임을 제한한 사람의 심리는 이해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비밀은 있어야 된다는 주이다. “인간은 다 개인이고 타인이라고 생각한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로, 100%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고 본다. 그 양이 다를 뿐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휴대폰을 볼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절대 보고 싶

지 않다”고 답했다. “모르는 게 좋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관심하고 싶고, 상대방이 나한테도 무관심한 게 좋은 것 같다. 예의상 뭐가 말하는 것을 안 좋아한다. 서로 믿고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믿지 못하면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카카오톡도 깔지 않았다.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 카톡을 안 하고 문자만 한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에게 핀잔을 많이 듣는다. 소외되고 싶다. 굳이 들어가서 끼고 싶지 않다. 앞으로도 그런 생각은 확고하다.”

이서진은 중년 레스토랑 사장 ‘준모’를 연기했다. 타고난 화이트로 항상 이성이 따르는 인물이다.

“나에게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다. 전에는 굳이 안 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생각이 변했다. 배우로서의 길을 생각했을 때 한 번 해보고 싶은 역할이었다. 또 이번 영화를 하게 된 것은 감독이 크게 작용했다.”

MBC PD 출신인 이재규(48)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드라마 ‘다모’(2003), ‘패션 70’s’(2005), ‘베토맨 바이러스’(2008), ‘더 킹 투 하츠’(2012) 등을 연속 히트시켰고 영화 ‘역린’(2014), ‘인플루언스’(2010) 등을 연출했다.

이서진은 ‘다모’ 이후 13년 만에 이 감독과 재회했다. “돌이켜보면 열정이 많았을 때다. ‘다모’는 사전 제작 드라마였는데, 서로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었다. 드라마가 잘 되면서 관계도 좋아졌다. 다시 만나 일해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여유로워진 면이 있다. 감독이 확고하게 원하는 것이 머릿 속에 들어있었다. 이 영화는 연출의 힘이 크다.”

뉴스스



‘더 이스트라이트’ 결국 해체

기획사 미디어라인 “남은 멤버 4명 전속계약 해지”

소속사 PD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시비에 휩싸인 6인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가 사실상 해체 수순에 접어들었다.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는 “남아 있는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4명과 회사 간의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발생한 18일 이후부터 남은 멤버 4명, 부모들과 함께 고민했다”면서 “빠른 시간 안에 멤버들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상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4명에 대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라인은 이은성(18), 정사강(16), 이우진(15), 김준욱(16) 등 멤버 4명 그리고 이들의 부모들과 계약해지 절차에 들어갔다.

미디어라인 관계자는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가져올 멤버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우려되지만, 아직 어린 멤버들이 더 이상은 상처받지 않도록 응원해주기를 바란다”고 청했다.

또 “논란이 증폭되고 이슈화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형제 멤버들이 이석철, 이승현을 포함한 전체 멤버 6명이 입을 수 있는 상처를 고려해 앞으로 불필요한 언론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더 이스트라이트 형제 멤버인 이석철(18)·이

승현(17)은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디어라인 A PD에게 상습적으로 맞았다”면서 “부모에게 알리면 죽인다는 협박도 상습적이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에 대해서는 “이런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도 ‘살살해라’고 말하며 방관했다. 대표님은 멤버들의 상처도 치료해주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켰다”고 했다.

22일 오전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김창환(55)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겸 회장과 자신들이 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A PD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회장은 폭행 방조, A PD에 대해서는 특수·상습 폭행 혐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A가 감정적으로 이승현을 때린 건 분명하다. 부정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그런 일을 내가 방조, 묵인, 교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석철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전한 이승현에 대해서는 인성을 비판하는 발언도 했다. 또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향후 법적 조사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더 이스트라이트는 2016년 데뷔했다. 영재 밴드로 이름을 알렸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만 17세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원글이 이날 오후 16만명 넘게 동의를 했다.

뉴스스

‘버닝’ 대중상 작품상, 황정민·이성민·나문희 남녀주연상

대중상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은 이창동(64) 감독의 ‘버닝’이 가져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자들이 대거 불참,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졌다.

지난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5회 대중상 영화제 시상식에서 ‘버닝’은 ‘공작’ ‘남한산성’ ‘신과 함께-인과 연’ ‘1987’을 제치고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이 감독을 대신해 무대에 오른 이준동 파인하우스 필름 대표는 “올해 훌륭한 작품이 많았는데 ‘버닝’이 상을 받게 되어서 기쁘다”며 “‘영화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남우주연상은 ‘공작’의 황정민(48)·이성민(50)이 공동수상했다. 윤종빈(39) 감독이 불참한 황정민의 상을 대리수상했다.

여우주연상은 ‘아이 캔 스피크’(감독 김현석)의 나문희(77)에게 돌아갔다.

남녀주연상은 지난해 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김주혁과 진서연(35)이 차지했다. 두 사람 모두 ‘독전’(감독 이혜영)에 출연했다. 김주혁은 특별



영화 ‘버닝’

상도 받았다. 생전 소속사인 나무엑터스 김석준 사무가 대리수상했다.

‘1987’의 장준환(48) 감독이 감독상의 영예를 안았다.

뉴스스

방송프로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주 KBS (062)610-7110 광주 MBC (062)360-2212 광주방송(KBC) (062)650-3190 EBS (02)521-0240

시간	KBS1	KBS2	MBC	KBC/SBS	EBS1
6	00 KBS 뉴스광장	00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5:00 왕초보 영어 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7	35 KBS 뉴스광장(광주) 50 인강극장	00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대장금이 보고있다 스페셜	40 KBC 모닝 730	06:00 한국기행 20 세계테마기행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경성판타지 스페셜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30 꼬마버스 타요 45 꼬마버스 타요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08:00 당동당 유치원 1 10 두근두근 방방 25 당동당 유치원 2
10	00 세계공영방송 서울총회 개막식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내 뒤에 테리우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30 미니특강 X 45 말말라 뿌우
11	50 한식의 마음	00 오늘의 탐정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09:00 엄마 까투리 15 엄마 까투리 30 원더볼츠 40 글로벌 이백 찾아 삼만리
12	00 KBS 뉴스		00 12 MBC 뉴스 25 헬로키즈 동물교실 2 55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뉴스 25 내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0:30 한국기행 최고의 오지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정오뉴스 10 EBS 초대석 13:00 독도채널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다큐 공감	00 속보이닝TV 인사이드	55 2시 뉴스 워전	55 닥터 365	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40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스페셜
2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전국노래자랑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00 뉴스브리핑	14:30 코코몽 3 15:00 마사와 공 스페셜 15 출동! 피자마 상총사 45 레전드이어로 삼국전
3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버 55 제47회 가을맞이 가곡의 밤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30 말말라 뿌우 45 당동당 유치원 1 55 두근두근 방방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	55 5 MBC 뉴스	00 kbc-jtv 공동제작 히스토리 쇼. 천년의 이야기	17:10 당동당 유치원 2 15 엄마 까투리 30 꼬마버스 타요 45 꼬마버스 타요
5	00 KBS 뉴스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파파독 2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5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18:00 토틀! 보니 하니 1 05 우리는 비트몬스터 20 토틀! 보니 하니 3 25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40 토틀! 보니 하니 4 45 명령이다, 비트!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전문목 남도에 살았어랴 55 지식 통조림	55 토틀! 보니 하니 5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화산섬의 비밀
7	00 KBS 뉴스 7 35 미디아Q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남씨의 생활 10 TV블로그 토틀리	30 뉴스 50 메디컬 다큐-7요일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실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20:40 세계테마기행
9	00 KBS 뉴스 9 30 KBS 뉴스 9(광주)				
10	00 순천 특별음악회 여순사건 70년 55 스텔라	00 오늘의 탐정	00 내 뒤에 테리우스	00 흥부와곽씨를 흥신 의사들	
11	00 KBS 뉴스라인 30 오솔길 김제동	10 회사 가기 싫어	10 라디오스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	00 세계공영방송서울총회 특별토론 50 인강극장 스페셜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45 스포츠 다이어리	30 나이트라인 1:00 희망TV SBS 스페셜	

오늘의 운세 양력 10월 24일 (음력 9월 16일)

구박사인생클리닉
원장 구홍덕 박사
010-8010-1777



	36년생 이제는 더 이상 전진지 없다. 48년생 속상하다고 식사는 거르지 말라. 60년생 내가 행한 대로 자녀들이 따라간다. 72년생 수입 증대, 주위를 보라. 84년생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고 시작하라. 96년생 친구의 진한 우정을 느낀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42년생 배우자의 병세가 더 나빠진다. 54년생 자금 불통으로 상심한다. 66년생 미리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으리라. 78년생 나의 자존심이 꺾이는 일이 생긴다. 90년생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37년생 나의 운이 없다고 자만하지 말라. 49년생 자녀의 충고를 받아 들이라. 61년생 친구의 우정을 받아 들이라. 73년생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85년생 문서, 계약을 조심하라. 97년생 내 주장이 옳은 것이 아니니 철회하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43년생 내가 먼저 화해하고 수긍하라. 55년생 배우자와 빨리 화해하라. 67년생 투자한 것이 몇 곱절 된다. 79년생 승진, 승급 운이 있으리라. 91년생 뜻밖의 수입이 생길 것이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38년생 금전적인 고통이 따르리라. 50년생 요령 피우지 말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62년생 가족들에게 확실한 내 뜻을 밝혀 두라. 74년생 친구와의 다툼이 관재수로 발전한다. 86년생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고민이 되리라. 98년생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는 법이 없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32년생 예상했던 일이 맞아떨어지리라. 44년생 나의 지분을 찾게 되는 좋은 운이다. 56년생 여유자금은 부동산에 투자하라. 68년생 배우자에게 속 보이는 일은 그만 하라. 80년생 다투던 일이 해결될 운이다. 92년생 앞뒤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39년생 희극 영화를 관람하면 힘이 솟으리라. 51년생 자녀의 승진, 또는 집을 장만할 운이다. 63년생 급한 마음이 일을 그르친다. 75년생 진행 중이던 일이 막혀 고민할 운이다. 87년생 오랜만에 찾아오는 즐거움이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33년생 욕심을 버리면 오히려 내 것이 되리라. 45년생 몸을 굽히고 마음까지 굽히는 것은 아니다. 57년생 한 발 앞보하면 득이 된다. 69년생 포상관계로 연락이 온다. 81년생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93년생 자금이라도 솔직하게 털어 놓으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40년생 친구의 비보로 우울해리라. 52년생 자녀의 말썸으로 고분 비탄할 운. 64년생 희소식, 계약이 성사되는 운이다. 76년생 휴식! 휴식이 최고의 보약이다. 88년생 공부, 이성 교제 모두 원만하지 못할 운이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34년생 다소 명예 회복이 되는 운이다. 46년생 과정은 이익보다는 손해를 불러온다. 58년생 무리한 싸움은 하지 말라. 70년생 직장 상사에게 더욱 깎듯 할 것. 82년생 욕심 때문에 오히려 손해 본다. 94년생 내 주장을 너무 내세우지 말라.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41년생 뜻밖의 손재 운으로 상심할 운. 53년생 배우자의 병이 차도를 보인다. 65년생 동남쪽에 투자는 절대 안 된다. 77년생 직장상사와의 다툼은 금물이다. 89년생 문서를 취독할 찬스를 잡을 것.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		47년생 내 것이 아니라고 슬퍼하지 말라. 59년생 지금은 할 수 없으니 양보하고 보라. 71년생 생각하지 않던 금전이 들어온다. 83년생 단방 약은 믿을 수 없으니 정도대로 치료하라. 95년생 주위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금전 ○ 매매 ○ 애정 ○ 직장 ×